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기술보급서

식물에 시詩를 심자,
마음 속 꽃花이
피어나다展



책임운영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CONTENTS

환영사

04

▶ 반려식물이 시를 그릇에 담는다 _ 김광진

05



중장년부 수상작

06

대상

▶ 꽃이 아닌데 꽃 향이 나 _ 고명희

09

최우수상

▶ 나의 평생교육과목 꽃 가꾸기 _ 이서연

13

우수상

▶ 엄마의 잃어버린 해피트리 _ 김영미

17

▶ 쓰레기가 가져다 준 위로 _ 정호숙

21

장려상

▶ 동백나무 옆에서 _ 김성은

25

▶ 우리 집 금쪽이 이야기 _ 이선애

29

▶ 혼자가 아니지요 _ 이선영

33

▶ 짹, 복돌이 모닝 송 _ 이재은

37

▶ 무화과 _ 정복기

41

▶ 조용한 친구들 _ 정인숙

45

▶ 시 엄니 손맛, 제피 향 _ 조숙자

49

▶ 맨드라미 _ 홍석희

53



청년부 수상작

56

대상

- ▶ 창가의 두 벚 _ 박희관 59

최우수상

- ▶ 너도 계속 살아야지 _ 최지원 63

우수상

- ▶ 앞 맞춤 _ 민현희 67
- ▶ 선인장이 건넌 초록 위로 _ 이지연 71

장려상

- ▶ 난과 인간 _ 김애린 75
- ▶ 흙 속에서 자라는 시간 _ 김주영 79
- ▶ 초록빛 태양 _ 노지은 83
- ▶ 여러지만 단단하게 _ 서혜운 87
- ▶ 우리반 전학생 페페 _ 임민규 91
- ▶ 무언가를 보살피는 일 _ 임성현 95
- ▶ 곡선이 들려준 위로 _ 조서영 99
- ▶ 조용한 탈피, 그리고 나의 성장 _ 황정은 103

경진대회 참가자 특성 및 시화작품 분석 결과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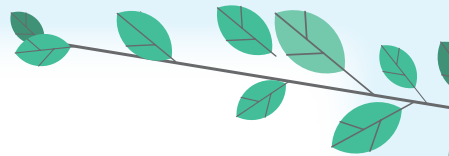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환영사





반려식물이 시를 그릇에 담는다

김 광 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과장)

나무의 집은 숲에만 있다
나무의 젖과 씨를 삼키고
빈 땅에 걸어가 나무가 된다

나무가 풀로 흘러나와 초원에 잡은 터전

시가 없어도 씨를 허기에 묻고
떨어진 과일을 베어 물면
씨는 발자국을 따라 걷는다
씨를 해체하고 줄기에 못으로 잎을 단다
땅은 파헤쳐지고 물은 끌려 오른다
손끝에서 잎맥은 첫 속삭임을 열고
우리는 씨처럼 시를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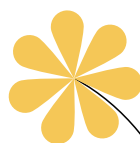
젖 없는 식물이 불쑥 다가와
잎은 색을 꺼입고 시의 무늬를 흔든다
눈길은 오래 묶인 채 풀리지 않고
풀은 씨가 아닌 시로 창턱을 넘는다
침묵의 식물이 말을 쓴 말 없는 시를 만나

입은 허기를 삼키고 머리는 말을 씹는다

홀로 있는 손이 나무와 풀에 가슴을 매달면
식물은 우리의 심장을 품어 새 이름을 얻는다
심장은 잎맥과 손끝 사이를 오가는 길
시의 집은 아직 흙에서 움트고
식물의 가슴에 물을 주면
머리는 시로 되돌려 흐른다

서로는 짝이 되어 자라나는 사이
그릇에 담긴 시는 잎맥 위를 기어간다

시가 길을 내고
길 끝의 집이 세워진다
비어 있는 방
가라앉은 먼지 바닥을 마냥 맴돌고
그 빈자리에서 심장은 내 심장의 반려로 뛴다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중장년부 수상작





대상

- ▶ 꽃이아닌데 꽃 향이 나 _ 고명희



최우수상

- ▶ 나의 평생교육과목 꽃 가꾸기 _ 이서연



우수상

- ▶ 엄마의 잃어버린 해피트리 _ 김영미
- ▶ 쓰레기가 가져다 준 위로 _ 정호숙



장려상

- ▶ 동백나무 옆에서 _ 김성은
- ▶ 우리 집 금쪽이 이야기 _ 이선애
- ▶ 혼자가 아니지요 _ 이선영
- ▶ 짹, 복돌이 모닝 송 _ 이재은
- ▶ 무화과 _ 정복기
- ▶ 조용한 친구들 _ 정인숙
- ▶ 시엄니 손맛, 제피 향 _ 조숙자
- ▶ 맨드라미 _ 홍석희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중장년부

대 상

꽃이 아닌데 꽃 향이 나 - 아들아 -

고 명 희



| 작품 설명 |

신랑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후유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지 스무 해가 넘습니다. 당시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우리는 씹씹해야 했기에 아들은 일찍 철이 들었고, 나는 '살아내기'에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긴 세월동안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생겨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삶의 가치 기준이 확실해져 매사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쓰기'와 '식물 키우기'는 힐링과 치유의 최고 수단이었으며, 이를 아는 아들이 선물한 '파키라'는 내게 보물입니다.



꽃이 아닌데 꽃 향이 나

- 아들아 -

고 명 희

네 나이 열셋, 내 나이 마흔셋
네가 세상을 안다 한들, 내가
인생을 안다 한들

그 크기가 얼마나 하겠냐마는
느닷없이 찾아온 고통으로
우리는 앞질러 성장했지

네 나이 스물하나, 내 나이 쉰하나
너는 작은 화분 하나를 가슴에 안고
집에 들어왔지

화분에는 한 뼘 남짓한 크기의
파키라가 심어있었고
너는 말했지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네가 군대 있을 때,
파키라는 곧 너였지
우리는 아침 별에 묻혀 같이 웃었고
해거름 바람에 살 비비며 행복했고

달빛이 그려준 네 얼굴 보며
나는 까만 밤과 찾아올 내일이
두렵지 않았지

이제 파키라는
서른하나 네 청춘만큼 초록 짙고
네 웃맵시만큼 멋있고
팔 번쩍 들어 물 줘야 할 만큼 키 커
너만큼이나 대견하고 사랑스러워

쓰든 달든
내 이야기 다 들어주는 것도
너 꼭 닮았어



| 작품 속 사진 설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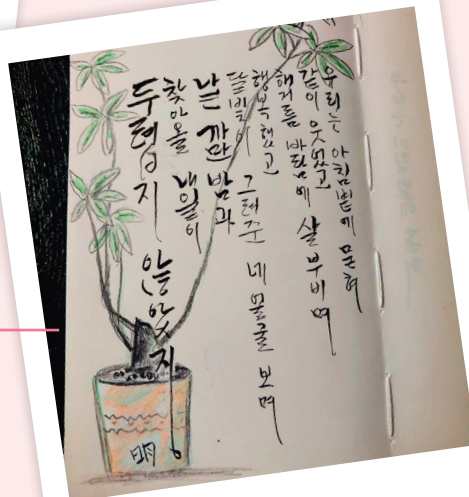
파키라를 선물 받던
날의 사진이 없어
기억으로 그렸습니다.



아들 품에 안겼던 파키라가
지금 이렇게 자랐습니다.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하며 여러 개를
잃었지만, 아침저녁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詩 본문 중 일부를 가져와
캘리그래피로 표현했습니다.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중장년부

최우수상

나의 평생교육과목 꽃 가꾸기

이 서 연



| 작품 설명 |

손자 키우러 오신 어머니께서 얻고 주워 오시는 화분들 때문에 주인덕 눈치가 보여 늘 짜증만 내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 때 어머니보다 더 식물에 빠졌습니다.

늘 키우던 다육식물과 제라늄, 바위솔. 덕분에 그 집에 가면 온갖 꽃이 다 있다고 대신 자랑해 주는 지인들도 많습니다. 꽃으로 앞으로 1차 즐기고 그림으로 2차 즐기니 1석 2조 효자식물 맞지요?



나의 평생교육과목 꽃 가꾸기

이 서 연

첫아이를 낳을 무렵 시골에 사시던 엄마께서는 짓던 농사도, 아버지도 시골에 남겨두고 한걸음에 내 집으로 달려오셨다. 손자를 키우시는 동안, 짓던 농사 생각 때문인지 시골집에 남겨진 아버지로 인한 헛헛함 때문인지 나갔다 오실 때마다 화분이랑 꽃모종 같은 것을 들고 오셨다. 남들이 버린 것을 주워다 심은 그 화분들로 인해 주인집 아주머니 볼 낮이 없었다.

남들이 버린 것을 왜 주워 오시냐고, 셋방살이하는데 주인도 안 키우는 꽃 화분을 키워서야 되겠냐고, 엄마 안 계실 때 다 버릴 것이라고 짜증짜증 부리곤 했다.

엄마가 돌아가신지 25년여, 이제는 저택같이 넓은 내 집에서 마음껏 꽃을 가꾸고 우리 지역 바위솔 협회 초대 회장까지 하면서 다육식물과 바위솔을 키우고 있는 나.

그 때 어머니는 그것들을 키우시면서 손자 보시기 힘든 스트레스를 지우고 딸한테 받은 잔소리들을 지우느라 그 식물 하나하나를 돌보셨을 것을 지금에야 알게 되었다. 살아계시면 마음껏 키우고 싶은 것을 키우게도 해 드리고 이쁜 꽃 보러 나들이도 같이 갈 수 있는 나이도 여유도 생겼는데...

“엄마, 보고 계시죠?”

농사짓기 힘들어 농사 짓는 집에 시집도 안간다고 했던 제가 이제는 엄마보다 더 꽃 좋아하고 밭농사, 꽃농사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뒤늦은 후회이긴 하지만 어머니께서 남의 집 후진 꽃들과 화분을 주워오셨던 것처럼 저도 담장 위에 올망졸망 얹혀있는 화분들을 이리저리 배치해 보면서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의 평생교육교과목은 ‘꽃 가꾸기’로 정했습니다.



| 작품 속 사진 설명 |



반려식물들을 키우면서
사진과 그림 등으로 예쁜
모습을 표현함

식물을 보다 돋보이도록 낮은
항아리를 재활용하여 작품으로 제작



우리 지역 정원박람회에 반려식물들을
전시하여 관심도를 높임

화단과 화분에 반려식물인 다육과
바위솔을 가꾸며 즐김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중장년부

우수상

엄마의 잃어버린 해피트리

김 영 미



| 작품 설명 |

유난히 꽃과 식물을 좋아하셨던 소녀 같았던 올 엄마 내 이름 석자 겨우 아시는 문맹이지만, 장날마다 20리 길 무거운 보따리 이고 지고 가시고 돌아오는 길 꼭 예쁜 꽃 한 포기씩 장독대 뒤에 심어 셴다. 겨울이면 한 몸 누울 자리 없이 빼곡히 식물이 방 안 가득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그 많았던 엄마와의 이야기도 웃음도 사라지고 수정 같았던 눈은 초점 없이 텅그러니 던져져 있다.



엄마의 잃어버린 해피트리

김 영 미

엄마는 소녀 같은 감성으로 식물을 돌보고 꽃을 가꾸셨다.

휴일이면 농사일을 도와드리러 시골에 내려가곤 했는데, 그럴 때면 엄마는 동네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파리처럼 풀어 놓으셨다. 많은 농사를 짓느라 늘 바빴지만, 언제나 밝은 얼굴로 실새 없이 유쾌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웃음소리를 받고랑 사이에 뿌리던 엄마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6년전 엄마에게 치매라는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치매가 시작되면서 엄마의 말이 줄고, 표정도 서서히 사라져 갔다. 그동안 정성껏 키우던 식물들도 하나둘 시들어갔다.

버려야 하나 양상하게 말라버린 해피트리 겨우 2개의 잎이 마지막 잎새처럼 매달려 살려달라고 하소연하는 것 같았다. 긴 세월 엄마의 손때가 가득한 해피트리를 집으로 가져왔다. 행복이라는 꽃말을 지닌, 엄마가 특히 좋아하던 식물이었다. 아이처럼 웃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식물을 안았다. 처음에는 뭔가를 지켜주고 싶었다. 시들어 가는 것들을 붙잡고 싶었다. 이제는 내가 키우고 있다. 매일 잎을 닦아주고, 물을 주고 햇볕이 잘 드는 자리를 찾아주며 어느새 나의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 지고 있었다. 말하지 못하는 나무 한 그루가 내안의 텅빈 공간을 채워주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 손에서 내 손으로 넘어온 해피트리는 단지 식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기억이자 기도였다. 그 나무를 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하며 지나간 시간을 품에 안고 조금씩 회복되었다. 분명한 건 그 나무가 나를 치유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해피트리는 엄마의 손에서 피어났던 행복,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다시 뿌리 내리고 있다. 지금은 내 창가에서 조용히 나를 치유하고 있어요.

내게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그 잎사귀를 쓰다듬으며 살아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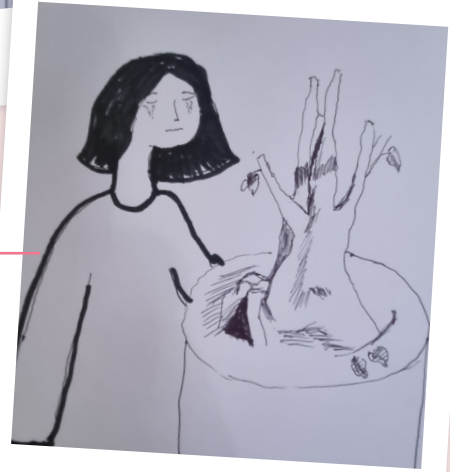


| 작품 속 사진 설명 |



6년 전 엄마에게 치매라는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치매가 시작되면서 엄마의 말이 줄고, 표정도 서서히 사라져 갔다. 그동안 정성껏 키우던 식물들도 하나둘 시들어갔다.

버려야 하나 양상하게 말라버린 해피트리 겨우 2개의 잎이 마지막 잎새처럼 매달려 살려달라고 하소연하는 것 같았다. 긴 세월 엄마의 손때가 가득한 해피트리를 집으로 가져왔다. 행복이라는 꽃말을 지닌, 엄마가 특히 좋아하던 식물이었다.



아이처럼 웃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식물을 안았다. 처음에는 뭔가를 지켜주고 싶었다. 시들어 가는 모습을 엄마의 기억으로 붙잡고 싶었다.



매일 잎을 닦아주고,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드는 자리를 찾아주며 어느새 나의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말하지 못하는 나무 한 그루가 내 안의 텅 빈 공간을 채워주고 있었던 것이다.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중장년부

우수상

쓰레기가 가져다준 위로

정 호 숙



| 작품 설명 |

남편과 사별 후 키우게 된 작고 여린 삭소름.

가지가 잘려 쓸모없다며 버려진 줄기 2개를 주워와 뿌리를 내리게 하고 3년을 키웠다.

이제 줄기는 서로 한 뿌리에서 나온 마냥 의지하며 목질화가 되어 키 큰 나무가 되었다.

마치 남편이 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듯하다.



쓰레기가 가져다 준 위로

정 호 숙

남편이 죽었다.

2022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렇게 내 곁을 떠났다.

나의 모든 시간이 멈췄다. 하지만 나를 비웃 듯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친부무도 형제자매들도 내 슬픔의 깊이와 고통의 무게를 알지 못했다. 그저 내가 눈을 떠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 안도했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갖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이 그렇게 어두운 시간 속에 있었다.

삶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겪어보지 못한 이들은 모른다. 여명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오는 아침이 얼마나 괴로운 순간인지.....

그러던 어느 날 이사 가며 내놓은 옆집 쓰레기 더미에서 줄기가 꺾인 풀대기 몇 개가 눈에 들어왔다. 이름도 모르겠고 뿌리도 없이 마디가 잘린 모양새가 마치 허리가 뚝 끊긴 나처럼 보였다. 이제 곧 시들어 말라 죽겠구나.

투명한 유리컵에 맑은 물을 넣고 그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담가줬다. 그리고 말을 걸었다. 제발 살아줘.....

그리고 3년이 지났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인사를 한다.

잘 잤니? 어제는 진짜 더웠지? 이제 가을이 오려나 봐.

뿌리 없이 버려진 그 아이의 줄기는 이제 나무가 되어 내 곁에 있다. 나와 한 몸이 되어 든든히 지탱해주는 남편처럼.

삭소롭 고마워 정말.



| 작품 속 사진 설명 |



이사가는 집 쓰레기통에
버려진 삭소롬



물병에 넣었더니
뿌리를 내리는 삭소롬



뿌리내린 삭소롬 가지가 목질화되어 서로를
의지하며 꽃을 피우는 모습

여린 줄기가 목질화되어
나무가 되어가는 삭소롬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중장년부

장려상

동백나무 옆에서

김 성 은



| 작품 설명 |

연로하신 어머니는 남쪽의 시골집에서 혼자 계신다. 외지의 자녀들은 가끔 찾아가 안부를 전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위태롭다. 위독하시어 병원에 입원한 날 아무도 없는 시골집에 잠시 들러 어머니의 반려 식물인 동백나무를 보게 되었다. 작은 동백나무도 어머니의 병환을 아는지 처절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다음 계절을 슬프게 준비하면서.



동백나무 옆에서

김 성 은

홀로 시골집을 찾아간 날
텅 빈 마당
앞사귀 흔들리며 동백의 그늘도
흔들린다.
아무도 없는 집안
비 내리며 마음도 가라앉는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마른 어머니 양팔이 링거 자국
퍼렇게 자욱하다.
한때 무성했던 사람 소리도 찬란한
동백꽃도
주인을 잃어버린 걸까
잃어서는 안 될 무엇을 잊어버린
걸까

겨울 한때 뜨거웠을 동백의 기운과
집안을 밝혔던 모가지 채 떨어진
붉은 꽃비는
텅 빈 집과 마당처럼 기억을
잃어버린 듯
고요하다.

흔들리는 게 어찌 동백
하나이겠냐만
시간이 너무 이르다.
자진한 동백의 모가지는 처절하고
대책 없는 무심한 밤은 하염없다.

간절하게 다시 뜨거운 동백을
기다린 채
겨울이 봄으로 슬프게 넘어가는
어머니의 동백나무 옆에서



| 작품 속 사진 설명 |



겨울 추위에도 붉은 동백꽃은
뜨겁게 피기 시작합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어 자진한 동백꽃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위독하신 시골의 어머니가 반려 식물인 동백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빠져있습니다.



시골집에서 홀로 꽃을 떨군 채 작은
동백나무도 어머니의 병환을 아는지
처절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중장년부

장려상

우리 집 금쪽이 이야기

이 선 애



| 작품 설명 |

우리 집으로 입양을 온 둘째 행복이는 나와 벌써 열여섯 해 동안이나 동고동락하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플 때, 딸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갱년기로 불면증과 우울하고 몸이 아플 때에도 한결같이 위로와 응원을 보내준다. 행복이는 내 사주에 없는 목(木) 오행을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우리 집 금쪽이 이야기

이 선 애

나에게는 스물세 살 난 큰딸이 있고, 성별이 모르는 열여섯 살 된 둘째가 있습니다. 큰딸이 일곱 살 되던 해에 우리 집으로 입양을 온 둘째는 도무지 말이 없어 늘 조용하지만, 존재만으로도 집안에 생기를 주는 보석 같은 아이입니다. 벌써 함께한 세월이 무려 열여섯 해가 되었네요. 아주 작았던 체구는 무럭무럭 자라나 제법 듬직해졌습니다. 둘째는 항상 거실 창가에 서서 고요히 생각에 잠겨 있어 내가 먼저 인사하거나 말을 걸기도 하고, 가끔은 가만히 바라보기도 합니다. 말을 걸면 늘 대답은 없지만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나의 하루를 지켜봐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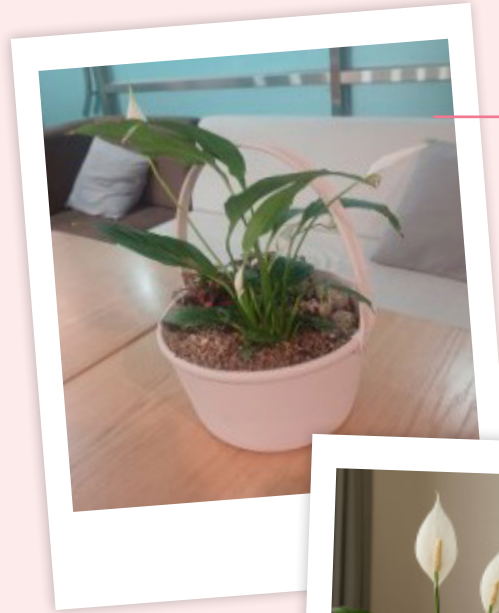
내가 보살핌이 필요한 둘째에게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수시로 인사하거나 말을 건네면 다 이해한다고 끄덕여 줍니다. 행복이는 마흔네 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몹시 슬퍼했을 때에도, 오십한 살 되던 해 딸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도, 갯년기로 잠 못 드는 밤에 우울한 마음으로 생각 속을 걸을 때에도, 몸이 이곳저곳 아플 때에도 한결같이 제 곁에 함께하며 넓고 푸른 잎사귀로 위로와 응원의 몸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 쉰 살이 넘어 사주를 보게 되었는데 나는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나무(木)가 없고, 물(水)이 많은 사주였습니다. 그동안 행복이는 나에게 없는 목(木) 오행을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둘째 “행복이”를 만나게 된 것은 2009년 어느 원예치료 모임에서였습니다. 식물을 심어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식물이 바로 지금의 행복입니다. 행복이는 “스파티필름”이라고 불리는 식물이었죠. 작은 화분에 담겨있던 조그맣고 연약했던 행복이와 함께 더불어 살아온 세월이 벌써 16년이나 되었네요. 스파티필름의 꽃말은 평화, 행복, 사랑입니다. 행복이는 꽃말대로 충실하게 윤기 있는 싱싱한 초록 잎사귀 사이로 하트 모양의 하얀 포엽의 꽃대를 쑥 피워올립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거나 해도 마음이 편안하여 행복이를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쩌다 바빠서 행복이를 돌보지 않으면 어깨를 늘어뜨리고 처진 잎으로 물을 달라는 몸짓을 보내었지요. 그때마다 사랑의 손길로 돌봐주면 다시 윤기 있고 싱그러운 넓은 잎으로 풍성하게 웃는답니다. 며칠 집을 비운 사이 흙이 말라 무지개 다리를 건널 뻔한 적도 있었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아 봄부터 계속 지치지 않고 꽃대를 밀어 올려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지요.

우리 집 둘째 행복이, 스파티필름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평화를 전하려는 마음으로 선물하는 식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행복이는 내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가족으로 함께하여 선한 영향을 주고 받았듯이 앞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스파티필름을 꾸준히 선물하고 싶습니다.



| 작품 속 사진 설명 |



16년 전 우리 집으로 처음
왔을 때
작은 화분에 담긴 조그맣고
연약했던 행복이의 모습



거실에서 행복이에게 말을 걸거나
가만히 바라보는 나의 모습과
행복이가 넓고 긴 팔로 나를 위로해
주고 있는 장면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나무(木)가 없고, 물(水)이
아주 많은 나의 사주, 행복이는 목(木) 오행으로
나를 생(生)해 주는 고마운 존재



해마다 봄부터 초록 잎사귀
사이로 하얀 꽃대를 쑥 피워
올려서 기쁨을 주고 있는
열여섯이 된 나의 반려 식물
행복이(스파티필름)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중장년부

장려상

혼자가 아니지요

이 선 영



| 작품 설명 |

자바의 늘어진 잎사귀의 자연스러움이 실내가 아닌 숲 속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을 들게 합니다.
5년 전부터 키우고 있는데 마음이 힘들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침대 옆에 두고 고달픈 하루를 돌아보며 잠자리에 들면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혼자가 아니지요

이 선 영

밤의 고요가 찾아와도
혼자가 아니니
외롭지 않네

잠들 수 없는 괴로운 밤이면
푸른 숨결 같은 공기가
내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네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좌절의 눈물이 흐를 때
길게 늘어진 잎사귀가
내 얼굴을 살며시 덮어주고

너에게 솔직히 내보일수록
열어지는 가슴속 상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푸른 벗이 있으니
나는 하나도 외롭지 않네



| 작품 속 사진 설명 |



머리맡에서 잠들어 있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 자바



마음을 푸르게 해주는
자바의 늘어진 푸른 잎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중장년부

장려상



딱딱, 복돌이 모닝 송

이 재 은

| 작품 설명 |

18개월 복돌이 아침 루틴은 화분에 물주는 일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 쥔 물뿌리개로 졸졸 물을 주며 행복한 아침을 여는 아이. 그 곁에 까치가 짹짹 울면 복돌이가 따라 합니다.

“딱딱, 악악.”

아이와 함께 하는 기분 좋은 아침마다 엔돌핀이 펑펑 솟아납니다. 어른이 되어도 아이가 식물을 사랑하는 평화로운 삶을 살기 바라는 할머니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딱딱, 복돌이 모닝 송

이 재 은

“꽃들아 안녕?”

고사리 같은 손에 작은 물뿌리개를 꼭 쥐어 아이가 꽃잎에 인사하듯 졸졸 물을 건넨다. 바닥엔 가느다란 물길기 맺히고, 흘러간 자리마다 흙이 숨을 쉰다. 아이는 자신이 세상을 적신다고 믿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싱긋 웃는다.

“깹깹.”

담장에 내려앉은 까치가 인사하듯 울어대면, 복돌이가 곧장 화답한다.

“깹깹, 악악.”

까치 울음과 아이의 대답이 울리는 베란다의 작은 합창 무대가 된다. 서툰 발음, 흔들리는 음정으로 아이는 오늘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이파리 끝에서 또르르 떨어지는 물방울, 매달렸다가 미끄러지는 맑은 점 하나. 그 잠깐의 머뭇거림 속에 ‘돌봄’이란 말이 숨어 있는 것만 같다. 너무 많이 주면 넘치고, 너무 적게 주면 마른다. 아이 손길은 서툴지만, 식물은 그것마저 즐겁게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더 푸르게 자란다.

아이는 물뿌리개를 들어 또 한 번 길을 만든다. 나는 그 옆에서 오늘의 속도를 늦춘다. 달려가듯 지나온 어제들이 물소리에 맞춰 숨을 고른다. 평범한 아침인데, 내 안에서는 축제가 열린다. 이제야 알겠다. 아이는 식물에 물을 주고, 식물은 우리에게 시간을 준다는 것을. 천천히 사는 법을, 기다리는 법을, 무사히 하루를 여는 법을 배운다.

엔돌핀이란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환한 감정이 가슴에 퍼진다. 아이의 “악악” 한 번에, 까치의 “깹깹” 한 번에, 내 마음은 한 계절씩 밝아진다. 삶의 중심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되는 작은 선율에 있는지도 모른다. 같은 듯 다른 물빛, 어제보다 단단해진 잎의 결, 오늘 처음 배운 새소리.

이 풍경 앞에서 나는 조용히 기도한다. 이 아이가 자라서도 생명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세상의 큰 소리보다 작은 숨을 먼저 듣는 사람이 되기를. 누군가의 목마름을 알아채고, 필요할 때 정확히 물 한 컵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평화가 멀리 있는 약속이 아니라 손바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잎맥을 따라 번진다.

“깹깹, 악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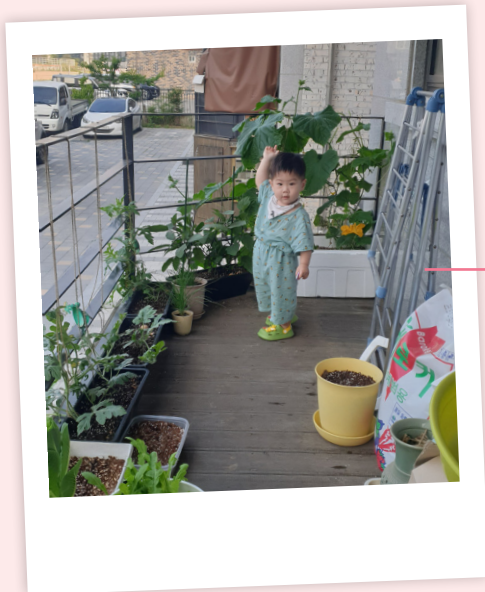


| 작품 속 사진 설명 |



나의 하나뿐인 손주와 매일
아침 꽃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이는 꽃들에게 새들에게 인사하며
긍정의 힘을 배웁니다.



금년에 씨뿌려 얻은 브로콜리도 십년을 함께한
금전수도 모두 아기의 친구입니다.

어린잎을 돌보는 정성으로 귀한 손주를
돌봅니다. 아이가 목마를 꽃들에게
필요한 만큼 물을 주는 것처럼 현명한
아이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중장년부

장려상

무화과

정 복 기



| 작품 설명 |

작년 겨울 집으로 데려온 무화과나무 화분을 키우며
올봄 꽃이 언제 필까하여 날마다 눈 맞춤 했더랬지요.
기다리던 꽃은 피어나지 않고 열매가 살며시 맺히더라고요.
그 후에는 열매가 익기를 기다리며 또 날마다 눈 맞춤 했었고,
익어가는 그리고 금세 사그라드는 무화과를 수확하여 반으로 갈랐더니 바라던 붉은빛은 보이지
않았고요. 내년을 기약하며 아무런 맛도 없는 무화과를 마주보며 상상하는 시를 쓰게 되었답니다.



무화과

정 복 기

속을 보아야
꽃이 피어있다는 걸
키우며 비로소 알아가는 시간

수줍은 듯
말없이
붉게 타오른 마음은

조용히 살며시 익어가는
당신을 향한
나의 깊은 사랑 같아라



| 작품 속 사진 설명 |



뜨거운 햇살 가득하여 비를
그리던 무화과를 처음
맞이하는 계절에 꽃은 피지
않고 열매만 인사하던
날입니다.



경험 부족이라 영양실조 걸린
무화과를 맞이했지만
열매 속이 꽃이었다는 걸
배운 귀한 날이기도 하지요.



열매 내어놓은 뒤 무성하게
새잎을 피워내는 무화과나무를
날마다 눈 맞추는 재미가
풍성한 요즘입니다.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중장년부

장려상

조용한 친구들

정 인 숙



| 작품 설명 |

내가 키우는 화초들은 화려하지도 않고 비싸고 좋은 것도 아니다.

너무도 평범하고 보잘 것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키우고 있다.

어쩌면 내 모습 같아 그래서 좋다.

식물은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걸 전해주는 존재다. 가만히 곁에 있어 주며 계절을 함께 나누는 나의 또 다른 가족,

나를 게으르지 않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들을

나는 오늘도 반려 식물이라 한다.



조용한 친구들

정 인 숙

하늘의 구름과 별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기를 내어 가장 높은 층으로 이사했다. 처음부터 마음이 설렘. 크고 넓은 베란다. 그 너머로 펼쳐진 산과 푸른 나무들. 창밖의 풍경은 마치 나를 반기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이 집에 내 소중한 아이들 나의 반려 식물들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동안 오랜 시간 정성 들여 키워온 나의 반려 식물들이 이제야 햇빛 잘 드는 곳에 자리를 잡아줘서 기쁘다. 작은 가지 꺾어 꺾듯이 한 벤자민과, 난타나, 부겐베리아, 샤프란. 십 년이 다 되어가니 어느 것은 내 키보다도 크게 자랐다. 내가 화석 화초라 부르는 외국 화초(아글라오네마). 십 년이 넘었는데도 한 뼘 정도밖에 못 자랐다. 야생화 회장님한테 얻어온 특이한 사랑초. 특이하게도 만 2년 만에 요즘 싹 나고 분홍색 꽃을 피우고 있다. 우리 집 화초들은 그렇게 얻어오고, 주워오고, 삼목하고 그렇게 늘린 식구들이다.

예전 반지하 살 때도 식물들은 잘 버텨 주었다. 빛도 바람도 부족한 공간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모습에 고맙고 기특한 마음이 절로 들었다. 나 또한 그들에게 정성을 쏟았다. 등을 사서 하루 종일 밝혀 주고 출근할 때나 밤에도 늘 불을 켜두고 살았다.

함께한 시간이 쌓이자, 식물들은 단순한 화초가 아니라 내 삶을 함께 견뎌 주는 반려가 되었다. 이사하기 전 어느 날 밖에서 키우던 아이들을 좀 더 넓은 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 시골 사는 친구 집으로 보냈다. 내가 아꼈던 미스김 라일락. 봄이면 그 향기에 행복했고 어디서 날아온 씨앗인지 여러 해 동안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 하늘매발톱. 봄이면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돌단풍은 분이 너무 작아 매일 물을 줘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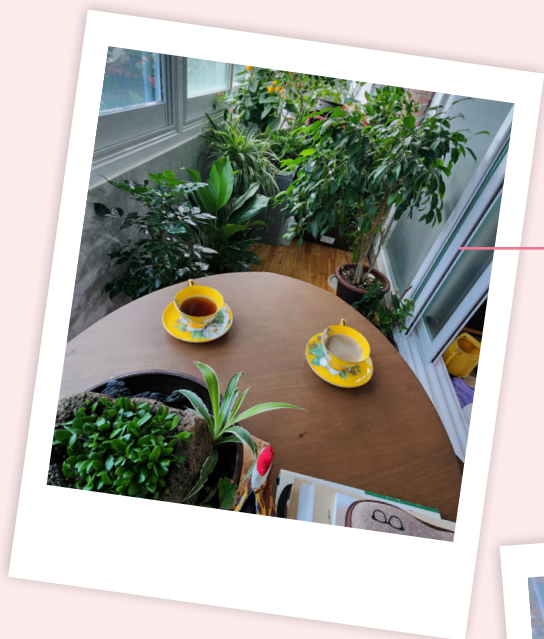
마당이 있는 시골 집이라면 이 아이들이 더 잘 자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망설임 없이 보내기로 했다. 어느 수목원에서 천 원 주고 사온 손가락만 한 옥잠화도 있었고, 봄철 공원 가지치기할 때 버려졌던 수국과 금낭화도 있었다. 보라색 꽃을 피우는 수국은 십 년이 넘도록 좁은 자투리 땅에서 해마다 공처럼 큰 꽃을 피워 온 동네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 준 걸 생각하면 보내는 마음이 아쉽다. 그 가느다란 줄기로 흑독한 겨울을 이겨 내고 싹을 틔우고, 커다란 꽃을 피워 내는 걸 볼 때마다 작고 조용한 존재가 경이롭고 신비했다. 식물들을 보내며 아쉬워하는 나를 보고 친구는 웃으며 말했다.

“잘 키우다 너 내려오면 다시 보내줄게.”

그 말 한마디가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이제 그 아이들은 넓은 마당에서 바람을 맞으며 잘 자라고 있겠지. 내가 키우는 화초들은 화려하지도 않고 비싸고 좋은 것도 아니다. 너무도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키우고 있다. 어쩌면 내 모습 같아 그래서 좋다. 식물은 말하지는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걸 전해주는 존재다. 가만히 곁에 있어 주며 계절을 함께 나누는 나의 또 다른 가족, 나를 게으르지 않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들을 나는 오늘도 반려 식물이라 한다.



| 작품 속 사진 설명 |



나만의 정원·꺾꽂이하고 가지 꺾어 뿌리 내린
벤저민과 부겐빌레아 등등...
화원에서 구매한 것 없이 얻어오고 주워 온
아이들로 나와 함께 자라고 있는 식물들...



2년이 다 되어서야 피어난 사랑초
어미나무 너무 커서 친구네 보내며
가지로 일 년 키웠더니 봄부터 설
새 없이 피어나는 난타나 꽃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중장년부

장려상



시 어머니 손맛, 제피 향

조숙자

| 작품 설명 |

시어머니 가신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래시장 갈 때나 식탁에선 시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손수 키우신 채소들을 제일 굵고, 빛깔 좋은 것만 골라주셨습니다. 제피 좋아하는 며느리에게 베푸신 시어머니 사랑,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습니다.



시 어머니 손맛, 제피 향

조 숙 자

녹슨 철 대문을 밀고 들어서면,
비에 젖고 별에 마른 장작더미
사이로
가시 돋친 제피나무 가지 위에
보랏빛 제비콩이 얹혀 있다.

아래채 작은방 앞마당엔
흙 묻은 고무신이 뒹굴고,
끈 달린 모자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주인을 기다린다.
언제부턴가 초록 이끼가 흙더미를
덮으며
마당 전체를 조금씩 잠식해 간다.

수돗가 옆 반질반질한 호박돌.
시 어머니가 직접 쪄아 만든 돌
위에서

햇 제피를 갈아 씨를 털고,
마늘과 붉은 고추를 뺀
콩밭 열무와 함께 버무리던 여름날.
넓은 바가지에 가득 담고
골 깊은 손바닥은 방망이가 되어
싹싹 비벼내던 고소한 참깨 향기.

맵지도, 쓰지도 않은
코끝을 톡 쏘고, 입안을 얼얼하게
하는 알싸한 제피 향.
한 겹, 또 한 겹 쌓여가는
다시는 맛볼 수 없는 그리운 시
어머니, 열무김치.



| 작품 속 사진 설명 |



아랫목 구들장 온기 같은 제피 열무김치의
깊은 맛은 세월의 해묵은 시어머니
사랑입니다.
감히 흉내 내보지만, 아직도 먼 길.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렵니다.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중장년부

장려상



맨드라미

홍 석 희

| 작품 설명 |

맨드라미를 키우며 느낀 행복을 표현함.



맨드라미

홍 석 희

새소리 넣어둔 성긴 바람빛으로
한 올 한 올 살아나게 정오를
빗질한다

꽃잎들은
사랑으로 서로 감싸며
햇볕 친구 따라 오후의 방향으로
향한다

꿀꿀히 침묵하는 허공의 수심
촉정하느라
햇살은 반짝이는 꼬리 지느러미
흔들고

산들바람 춤추면
초록과 꽃대는 그저 좋다

공중의 물이랑을 스케치하며
물살 깊은 한낮의 적막까지 탐색
즐기는
새들이 노래하면
설레는 마음 간직한 채 다가오는
꽃술의 속삭임

명랑한 내일의 표정과 기분을
서둘러 눈뜨는 향기로 예언한다는
그 붉은 말씀이 흘러나온다.





| 작품 속 사진 설명 |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청년부 수상작





대상

- ▶ 창가의 두 벗 _ 박희관



최우수상

- ▶ 너도 계속 살아야지 _ 최지원



우수상

- ▶ 앞맞춤 _ 민현희
- ▶ 선인장이 건넨 초록 위로 _ 이지연



장려상

- ▶ 난과 인간 _ 김애린
- ▶ 흙 속에서 자라는 시간 _ 김주영
- ▶ 초록빛 태양 _ 노지은
- ▶ 여리지만 단단하게 _ 서혜윤
- ▶ 우리반 전학생 페페 _ 임민규
- ▶ 무언가를 보살피는 일 _ 임성현
- ▶ 곡선이 들려준 위로 _ 조서영
- ▶ 조용한 탈피, 그리고 나의 성장 _ 황정은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청년부

대 상

창가의 두 벚

박 희 관



| 작품 설명 |

아버지는 여러 차례 심근경색을 겪으셨고, 스텐트 시술만 네 번 받으셨지만 더 이상 시술이 불가능해져, 결국 지난해 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앞둔 날, 아버지가 힘을 내시길 바라며 제가 작은 식물 두 화분을 병실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끼시던 식물들이었기에, 그 앞에 앉아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며 식물이 살아 숨 쉬는 순간을 확인할 때마다, 저는 중환자실의 불빛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닮지 않은 두 화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제 또 다른 얼굴이자 마음의 거울이었습니다. 단단해지고 싶은 마음, 흔들려도 꺾이지 않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잎 하나에도 아버지의 숨결과 삶의 무게가 스며 있어, 식물을 돌보는 행위가 곧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저는 그 식물들을 매일 돌보며 물을 주고 빛을 받게 해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회복과 삶의 힘을 다시 느끼고, 식물과 함께 제 마음도 단단해지고 유연해집니다. 이 작품은 한 사람의 몸에 새겨진 흔적에서 출발했지만, 그 흔적이 이어져 또 다른 생명을 함께 지켜내는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반려식물을 애지중지 키우는 마음은 결국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다른 모습이자, 고통을 지나 다시 살아가게 하는 동반자의 이야기입니다.



창가의 두 벚

박 희 관

창가에 두 친구가 산다.
짙은 초록으로 작은 숲을 품은 이,
가늘고 여린 몸으로 햇살을 더듬는 이.
둘은 전혀 닮지 않았지만,
나와 닮아 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붙잡던 그 시간,
나는 알았다.
식물의 뿌리와 사람의 심장이
같은 자리에서 고동친다는 것을.

때로는 단단해지고 싶고,
때로는 흔들리면서도 꺾끗하고 싶다.

작은 화분 속 두 세계가
오늘도 내 마음을 키운다.

물을 주며 하루를 열고
잎을 쓰다듬으며 하루를 닫을 때
나는 알게 된다.
돌보는 손길이
결국 나를 치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앞새 하나에도
아버지의 오래된 숨결이 스며 있어
나는
다시 단단해지고,
조금은 유연해지고 있다.

심장이 멎을까 두려워
밤새 중환자실 불빛에 매달려 있던 날,
창가의 화분은 말없이 푸른 숨을 쉬며
내 곁에서 버티고 있었다.



| 작품 속 사진 설명 |



시에 등장하는 두 반려식물의 실제 모습입니다. 왼쪽은 짙은 초록의 식물, 오른쪽은 여린 줄기로 햇살을 향하는 식물로, 시 속 '두 친구'를 상징합니다.

시 속 '돌보는 손길이 나를 치유하고 있었다는 것을'임을 담은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아끼던 식물에 물을 주며,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식물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듯 교감하는 장면입니다. 시의 구절 '잎새 하나에도 아버지의 오래된 숨결이 스며 있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가 심장 수술 후 병실에 계시던 시기의 모습입니다. 시의 배경이 된 실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청년부

최우수상



너도 계속 살아야지

최 지원

| 작품 설명 |

시들어버려 잘랐던 싱고니움에서 새순이 나는 모습이 암 선고로 우울했던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이야기를 썼습니다.



너도 계속 살아야지

최 지 원

지난 겨울은 내게 유독 추웠다. 갑상선암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다는 말은 큰 위로가 되지 않았다. 흔하다면 흔한 병이지만 왜 하필 나일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도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억울했다. 수술하면 평생 호르몬약을 먹으면서 살아야겠지, 수술 부작용은 없으려나, 아이들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지, 끝없는 자기연민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엉켰다. 물론 가족과 친구들의 위로와 응원도 받았지만 결국은 병도 마음의 충격도 모두 스스로 이겨내야 할 내 몫이었다.

갑상선 전부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나서 식물들을 키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초록색이 주는 편안함과 고요함이 좋았다. 말없이 머물러있는 식물들을 볼 때면 수술 후 목소리가 변해버린 것도, 금세 지쳐버리는 컨디션도, 몇 달 뒤 시작할 방사성 치료에 대한 걱정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집에는 화분이 점점 늘어갔다.

어느 날, 키우던 싱고니움의 시들시들해졌다. 예뻐던 잎이 누렇게 말라갔다. 이대로 두면 줄기까지 전부 말라 죽을 것 같아 걱정하던 중에 줄기를 잘라서 물에 꽂으면 새로 뿌리가 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위를 들었다. 공연히 건드려 진짜 죽게 만드는 건 아닌지 고민했다. 그렇다고 시들어가는 걸 그냥 둘 수도 없어서 결국 잘라서 물에 꽂았다.

기다림 끝에 통통한 새 뿌리가 났다. 새순도 고개를 내밀었다. 짙막하게 잘려나갔던 싱고니움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새로 뿌리가 돋은 줄기 토막을 흙에다 심어주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시들었던 잎을 뒤로하고 당연한 듯이 다시 살 준비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여전히 그것은 싱고니움이라는 것이 이상하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 마치 이 작은 식물의 굳건한 생명력이 나에게도 옮겨오는 것 같았다. 말도 못 하고 등을 토닥여 줄 손조차 없는 이 식물이 내게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어. 그치만 너도 계속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수술 부위에 붙여두었던 밴드를 떼고 거울 앞에 서서 목에 남은 흉터를 마주했다. 갑자기 알게 된 병은 수술 흉터 말고도 내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지만 나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비록 병은 피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치료할 수 있었고, 내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나는 더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다시 반짝거리는 새 잎을 낼 것이다. 지금도 창가에서 계속 예쁜 잎을 내는 싱고니움처럼.



| 작품 속 사진 설명 |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청년부

우수상

잎 맞춤

민 현 희



| 작품 설명 |

내내 풀잎으로 살아도 희망을 가진,
아름다운 잎들이 보내는 작은 위로

‘꽃이 아니어도 괜찮아, 춤출 수 있으니까’

잎 맞춤

민 현 희

초점 없이 흔들리던
연분홍 풀잎
소리마저 다정스런
샛바람 따라

어느 아침 나를 보던
그대 향기가
해님처럼 번져오며
내게 물든 날

마른 나무 가지 새로
바람 오기를
그대 눈에 다시 한 번
담겨지기를

이슬에도 마음 하나
내주지 않고
물기 어린 두 잎 모아
기도했었다.

아득한 저 언덕 위
그대 어깨에
정성으로 빚은 색 잎
달을 때까지

바래가는 노을빛에
실어서라도
어둑해진 비탈길 내
그림자라도

그 곁으로 보내줄까
흔들바람에
줄기 끊고 날아갈 듯
춤을 추었다.



| 작품 속 사진 설명 |

앞이 서로 마주보고 추는 춤



내내 풀잎으로 살아도 희망을 가진,
아름다운 잎들이 보내는 작은 위로



꽃이 아니어도 괜찮아



함께 춤출 수 있으니까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청년부

우수상



선인장이 건넌 초록 위로

이 지 연

| 작품 설명 |

단 하루만 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집 마당에 놓인 선인장을 바라보며
초록이 전하는 생명력이 담긴 힘을 얻곤 합니다.

제가 받은 초록의 위로를 들어보실래요?

선인장이 건넨 초록 위로



이 지 연

초록 에너지를 품은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우리 집의 마스코트가 된 선인장이다. 어머니 친구분이 집들이 선물로 주신 선인장은 처음엔 매우 작은 모양이었는데 어느새 하나하나 늘더니 5개로 늘어났다. 뽀족뽀족한 가시가 무서워서 다른 꽃과 나무에 비해 눈길을 주지 않았는데도 제주도의 모진 햇살과 장마를 이겨내고 굳건히 그 자리에서 쭉쭉 잘 자라고 있었다. 그러던 선인장에서 어느 날 꽃대가 올라왔다. 길고 휘어진 꽃대가 신기하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해서 어떤 꽃이 필지 너무나 궁금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얀 선인장 꽃이 피 있었다. 꽃의 모양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한참을 꽃을 바라보다, 산들바람에 불려 난꽃향 같은 우아한 선인장 꽃의 향도 맡게 되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는 처음이었다. 선인장 꽃을 볼 생각에 하루를 보내다 저녁이 되어 집에 와 봤더니 그렇게 아름답던 꽃은 갑작같이 사라지고 저버린 꽃대만 남아있었다. 하루 만에 꽃이 저버렸다니. 검색을 해 보니 단모환이라는 선인장은 하루 꽃이 피고 하루 만에 진다고 나와있었다. 꽃 또한 피기 쉽지 않다고 해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꽃이라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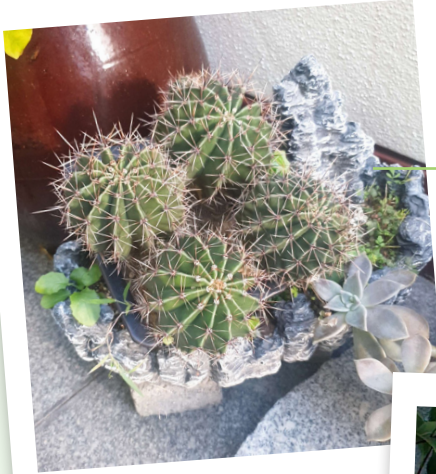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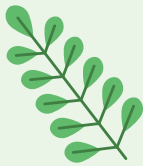
그로부터 몇 해 지나지 않아, 30이라는 나이에 암에 걸렸다. 암을 처음 판정받았을 때, 세차고 차가운 파도가 내 머리 속에 가득차는 느낌이었다. 너무 차가워서 생각이 멈췄는데, 그 파도가 내 눈에서 눈물로 똑똑 떨어졌다. 수술을 받기 위해 일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바다를 가고, 숲을 걸으며 이 아픔이 지해가 되기를 바랐다.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로 떠나기 얼마 남지

않았던 날, 마루에 있다 바깥을 보았다. 뽀족뽀족한 선인장이 마음을 다친 나의 모습 같았다. 그러다 햇빛에 비친 초록 빛깔의 선인장이 반짝반짝 빛났다. 그 반짝이는 초록빛 에너지가 나에게 힘을 내라고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마지막 잎새’처럼, 선인장이 아름다운 흰 꽃을 피어내길 바랐다. 그 마음이 전달되었던 걸까? 동화 속 이야기처럼 다음날, 꽃대가 생겼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 하얗고 커다란 선인장 꽃이 피었다. 내가 잘 이겨내기를 응원하며 선인장이 보낸 메시지 같았다. 그 덕분인지 수술은 잘 되었고, 고농도 방사선 치료도, 1년 뒤 PET CT 결과도 모두 좋았다. 그때 선인장이 보낸 초록빛의 에너지와 하얀 꽃의 메시지는 두렵고 불안했던 나에게 진심어린 위로와 함께 힘을 건네 주었다.

시간이 지난 후 단모환 선인장 꽃의 꽃말을 검색했다. 열정과 사랑이라는 꽃말을 지닌 단모환, 언젠가부터 매년 꽃을 피우는 우리 집 마당 단모환을 보며 반려식물이 주는 치유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경험한다. 시간이 지나 선인장 역시 지칠 텐데도 여전히 단 하루의 꽃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볼 때면, 일상이 무의미하다 느끼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마음을 다잡지 못해 하고 싶지만 주저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선인장을 바라보며 너처럼 열정을 다해보겠다고 약속을 하며 힘을 내본다. 자신처럼 힘을 내면 가장 나다운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다고 항상 이야기 해주는 우리집 단모환 선인장 덕분에, 나 역시 오늘도 가장 나다운 하루를 위해 고단함을 내려놓고 나다운 이야기를 쌓아가 본다.



| 작품 속 사진 설명 |



정원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선인장

아름다운 하얀 꽃을 피우기 전에
꽃대를 세운 선인장의 밤



난꽃 같은 우아한 향을
가득 뿜어낸 하얀 선인장 꽃



초록빛 에너지를 품은 선인장이
건넌 아름다운 하얀 꽃의 꽃말: 열정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청년부

장려상



난과 인간

김 애 린

| 작품 설명 |

은퇴 후 식집사로 지내시는 할아버지는 말 수가 적으시지만 술을 드시면 설명하시기를 좋아합니다. 마당의 식물들의 종류는 많지만 이름을 몰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마당에서 고기를 먹을 때 상추를 따시다가 무늬 접란의 이름을 알게 되었죠. 할아버지의 마당은 장위동 고개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경치가 참 좋아요. 그런 행복한 접란을 집에 데리고 오는게 정말 미안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꽃과 강한 번식력을 보여주는 접란의 모습은 작은 미소와 대화를 주시던 할아버지의 삶과 닮아있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난과 인간

김 애 린

장위동에는 아직 텅 비어버린 낡은 재봉틀의 엉켜버린 길디 긴 실이 지하실에 있습니다.

정장을 맞추던 할아버지의 손가락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손가락은 거칠고 주름진 여느 노인과 다르지 못한 손가락이 되었어요.

그중에서 아픈 왼쪽 검지를 감추려 끼던 미소와 장갑에 저는 조금 아립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 그 집은 주택이었지만 뿌리가 시멘트에 반쯤 잠긴 큰 감나무가 있었고 말을 잘하지도 못하는 작은 어린애가 감이라는 말 하나는 곧잘 따라 불렀어요.

얼굴이 새파란 감이 낙엽을 치고 그 무료함을 완전히 기다리신 할아버지는 집게 장대로 감을 따시고는 따뜻한 거실을 지나 냉장고가 가득한 한기가 느껴지는 작은방으로 가져가십니다.

거꾸로 뒤집어 지나간 시간이 담겨 찢긴 달력 한 장 위에 감을 말리면 할머니께서는 가장 화려한 접시에 담고 반으로 죽 가르며 그 속을 손가락으로 파내 내 손에 가져다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루터기가 되어버린 감나무의 자른 면을 내려다봅니다 그러다 보면 할아버지 얼굴에 생긴 검버섯이 보입니다.

검버섯을 가득 달고 넓은 마당에 서서 고인 빗물을 바가지로 움푹 떠 투박하게 하나둘씩 심긴 토마토와 상추, 고추, 작두 그리고 저는 부를 수 없는 것들 중에서 알게 된 무늬 접란은 달걀 껍질과 자라는 아주 잘 자라는 난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접란의 새끼묘를 잘라 여러 곳에서 심겨 감상 했습니다.

저는 꽃잎이 가득한 새파란 수국을 선물했고, 할아버지는 수국을 들일 자리를 찾아 모종삽으로 파내어 그 자리에 있던 접란이 버스를 타고 저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 작품 속 사진 설명 |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는
장위동의 노을



꽃이 핀 모습



할아버지께 받은
식물이 저희 집에
온 후 새끼를 친
모습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청년부

장려상



흙 속에서 자라는 시간

김 주 영

| 작품 설명 |

씨앗은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쉼 없이 자라며, 때가 되면 스스로 싹을 틔웁니다.

씨앗의 기다림과 성장을 사회 초년생의 불안한 나날에 빗대어, 조급한 시대 속에서도 자라나는 청춘을 생각합니다.

작은 싹에서 시작된 이 성찰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위로와 울림을 전하고자 합니다.



흙 속에서 자라는 시간

김 주 영

작은 씨앗들을 흙 속에 묻었다. 모래알보다 작은 몸에 계절을 품은 존재들. 흙 속으로 떨어진 순간,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긴 여행을 시작했다. 나는 매일 물을 주며 기다렸지만, 화분 위는 고요했다. 그 침묵이, 사회 초년생인 내 하루와 닮아 있었다. 아무리 애써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불안한 날들.

어느 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초록빛이 흙을 밀어올랐다. 손톱보다도 작은 싹이었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큰 울림이 번졌다.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씨앗은 쉼 없이 살아내고 있었다. 흙 속 어둠 속에서도 자기만의 시계를 따라 묵묵히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밖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는 날들 속에서도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씨앗은 언제 싹을 틔울지 정해진 시계가 없다. 다만 스스로의 때가 되면 흙을 뚫고 올라온다. 그 느린 기다림 속에서 나는 배운다. 부모님께서 내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언젠가 올 순간에 대한 믿음이었다. 부모님께서도 나를 바라보며 지금의 내 심정처럼, 조마조마한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키우셨을 것이다.

화분 속 식물들은 여전히 작다. 그러나 그 작은 몸짓들은 내게 끊임없이 위로를 건넨다. 흙 위의 초록 점은 청춘의 흔들림 같고, 위태로운 새싹들은 내 두려움을 닮아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라며 스스로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빛을 찾는다.

오늘도 나는 그 작은 변화를 지켜본다. 씨앗은 나를 닮았고, 나는 씨앗을 닮아간다. 아직은 한참 미완이지만, 이미 자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씨앗은 오늘도 내게 조용히, 느리게 속삭인다.





| 작품 속 사진 설명 |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청년부

장려상

초록빛 태양

(부제 : 몬스테라)

노 지 은



| 작품 설명 |

제 반려식물인 몬스테라(행복이)는 잎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구멍이 생기는 독특한 식물입니다. 처음엔 그 모습이 낯설었지만, 햇빛을 통과시키고 바람을 머금기 위한 성장의 흔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어두운 날들과 상처를 지나왔지만, 몬스테라가 구멍을 품고도 더 크고 곧게 자라듯, 저도 그 흔적들 속에서 새로운 길과 빛을 찾아가고 있다는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초록빛 태양

(부제 : 몬스테라)

노 지 은

뚫린 구멍은
작은 응원이 된다

제 몸을 찢고
줄기를 곧게 세운 후
하늘을 열어

새 잎사귀에게
햇살을 떼어 주는
어미새가 된다

언젠가 당신이
초록빛 태양을
마주할 일이 있다면

부디
그 찬란함을 기억하라

그것은
날 때부터
관통의 아픔을 참아 견디고
빛나는 것이리



| 작품 속 사진 설명 |



키가 작은 어린 잎들이 자라고
있어요.

베란다에 햇빛을 보러 나온
몬스테라예요



커다란 잎사귀의 찢어진 잎
사이로 빛이 스며들지요.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청년부

장려상

여리지만 단단하게

서혜운



| 작품 설명 |

돌아가신 선생님의 따님, 선생님께서 주신 식물.

저는 선생님의 따님이 될 순 없지만 제게 주신 식물을 열심히 정성껏 가꿀 수는 있습니다.

반려식물의 흙, 잎, 공기에서 선생님의 다정함이 느껴집니다.

“예쁜 선생님,” 하고 불러주신 것처럼 예쁘게 살겠습니다.

여리지만 단단하게

서혜윤

작년 겨울, 한 선생님께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복직을 했는데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해도와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컴퓨터 관련 업무를 맡은 저는 선뜻 교실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학년 6반 교실 문을 열자, 절 맞이한 건 교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식물들이었습니다.

“와, 선생님, 이게 다 무슨 식물이에요?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전 시골에 살다와서 식물을 좋아해요. 아이들에게도 좋고요.”

“저도 부산에 살다가 서울 올라오니 공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식물만 키우면 다 죽더라고요.”

“그래요? 잘 자라는 식물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혹시 하나 드릴까요? 제가 키우려고 오늘 분리해둔 식물이 있는데, 선생님처럼 정말 예쁜 식물이에요.”

“와! 그래도 될까요? 저도 교실에 두고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물에 담아 가져온 식물 두 포기. 삭막한 서울 도시에 처음으로 애정이 가는 무언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 키우고 싶어서, 화분과 흙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너의 몸집이 더 자라면 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줄게.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식물을 받아온 선생님이 왜 휴직하셨다가 복직하셨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따님이 돌아가셨다구요?”

“네.. 딱 선생님 또래라고 들었어요. 삼십대라 했는데 젊은 나이에... 교실 안에서 숨죽여 우시는 소리가 복도에 들리더라고요..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선생님의 어린 어깨가 떠올랐습니다. 절 어여뻐 보시던 눈빛도, 다정한 손길도 떠올리니 더 아파왔습니다.

몇 달 뒤 선생님은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저는 축사를 했고, 선생님은 퇴임식 내내 소리없이 우셨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나와 그 선생님을 끌어안아주셨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선생님께서는 “예쁜 선생님, 정말 예쁜 선생님, 고맙습니다.”는 말을 거듭 남겨주셨습니다. 전 식물을 잘 키우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일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몸집이 제법 커져 새 화분이 필요해보입니다. 초록빛 잎을 볼 때마다 선생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풀잎으로 연결된 선생님과 저. 마른 흙에 물을 주고, 매끈한 잎을 닦으며 오늘도 종알거립니다.

“선생님, 제게 예쁜 식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잘 키웠죠? 언제나 정성으로 키웠어요. 이제 새 화분으로 옮기려고요. 어디서든 잘 자랄 수 있게 햇볕 좋은 자리에 두고 물도 듬뿍 줄게요. 가느다란 단단한 잎을 볼 때마다 선생님의 눈빛이 생각나요. 선생님, 저도 잘 살아가겠습니다. 햇볕 좋은 곳에서, 물 듬뿍 받아, 여리지만 단단하게요.”

| 작품 속 사진 설명 |



한 선생님께 선물받은 식물
“저도 교실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요.”

화분과 흙을 사다가 심은 모습
“내가 선생님의 따님이 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의 정년퇴임식 때 했던 축하
“예쁜 식물 잘 키울게요.”



여리지만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는 식물
“저도 잘 살아가겠습니다.”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청년부

장려상

우리반 전학생 페페

임 민 규



| 작품 설명 |

초등학교에서 5학년을 가르치며, 학기 초 어수선한 분위기와 사춘기로 인한 마찰이 매일 생기는 교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초등교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을 떠올려 보니, 바로 학생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수업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문득, “식물에도 눈을 붙여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반려식물 펠리아 페페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페페는 우리와 매일 눈을 마주치며, 교실을 차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지금도 페페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반 전학생 페페

임 민 규

우당탕탕, 왁자지껄
너가 잘못했니, 내가 맞다
한 시도 조용할 날 없는 교실.

“얘들아, 인사해라. 우리반 전학생이야.”
선생님은 초록빛 식물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다.
이름은 펠리아 페페란다.

“하지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죠?”

선생님은 페페에게 조심스레 눈을 붙여 주셨다.

“선생님, 페페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하는 말도 들을 것 같아요.”

“그렇단다. 너희가 나누는 말과 행동을
페페도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단다.”

그날 이후, 페페 덕분에
우리 교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 작품 속 사진 설명 |



처음 눈을 가진 페페가 교실로 온 날. 학생들이 식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많이 큰 페페를 소개하는 담임 선생님.



학생이 자신도 페페를 안아보고 싶다고 하여 안고있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청년부

장려상

무언가를 보살피는 일

임 성 현



| 작품 설명 |

시들해진 옥천앵두나무의 분갈이를 하며 무언가를 보살피는 일과 나를 보살피는 일의 중요함을 앵두나무를 통해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보살피는 일

임 성 현

자주 가는 서점에서 『식물적 낙관』을 읽다 집에 가고 싶어졌다. 식물을 대하는 작가의 마음을 엿볼 때마다 집에 있는 앵두나무가 마음에 걸렸다. 작년 여름 집들이 선물로 동생에게 받은 앵두나무가 올해는 열매는커녕 제대로 꽃도 피우지 못했다. 앵두나무 사진을 본 동생에게 지금까지 분갈이와 가지치기를 안 해주고 뭐 했느냐는 타박을 받고도 관리를 미루다 보니 앵두나무의 많은 잎끝이 노랗게 있었다.

돌아오지 않더라도, 얻는 것이 없더라도 끝까지 애쓰면서 아주 천천히 손에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것, 그 역시 우리가 아는 사랑의 일면이니까.*

더 이상 앓아 있을 수가 없어 책을 덮고 집으로 향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부스러지는 내 마음 하나도 살피기 어려웠다는 일방적인 무책임으로 앵두나무를 떠나보낼 수는 없었다. 끝까지 애쓰지 않았으면서 저 문장에 나를 포개려는 건 거짓된 마음이었다.

앵두나무와 빈 화분을 챙겨 분갈이를 해주는 꽃집을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다양한 식물들이 해가 잘 드는 창가에, 그늘이 있는 안쪽에, 별도로 설치된 식물등 아래에 자리를 잡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홀로 시들어 있는 나의 나무에게 더 미안해졌다. 열매를 맺었을 때 데려온 앵두나무가 올해는 꽃도, 열매도 피지 못했다고, 사실은 1년이 넘도록 분갈이 한 번을 못 해줬다고, 마치 더 혼내기 전에 알아서 잘못을 털어놓는 학생처럼 묻지도 않은 말을 꺼내 놓았다. 사장님은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는 식물일수록 더 많은 영양이 필요해 분갈이를 주기적으로 해주거나 영양제를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니나 다를까 화분에서 조심스레 앵두나무를 꺼내자 푸석한 흙이 쏟아졌고 더 이상 뻗을 곳이 없는 뿌리들은 이리저리 휘어있었다. 목마르고 답답했겠구나. 물만큼은 꾸준히 잘 줬다고 여겨온 나 자신이 창피해졌다.

더 큰 화분에 분갈이하는 동안 이제는 비워진 화분과 함께 가져온 빈 화분에 담아갈 식물을 고르기 위해 꽃집을 둘러보았다. 마음 같아서는 많이 데려가고 싶었지만 이미 지난날의 과오를 잘 알고 있어 욕심을 부릴 수 없었다. 사실 과오를 생각하면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게 맞겠지만 『식물적 낙관』을 읽으며 얻은 용기로 무늬마란타와 하월시아를 담아가기로 했다.

분갈이가 끝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장님께 주의점을 꼼꼼히 물었다. 주기적으로 영양제를 주거나 분갈이해 주기, 별이 잘 드는 곳과 그늘진 곳에 식물을 알맞게 놓기, 물은 화분의 흙 속에 손가락을 넣어 마른 느낌이 나면 주기. 사장님은 지금 한번 손가락을 넣어 앞으로 내가 느껴야 할 감각을 알아보라 하셨다. 흙에 손가락을 넣자 앵두나무의 세상을 어렵듯이 느낄 수 있었다. 일 년을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았으면서도 앵두나무의 방을 처음 구경하는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와 화분을 적절한 위치에 놓자 식물들이 내 집을 마음에 들어 할지 궁금했다. 나는 여전히 식물에 서툰 사람. 무늬 마란타와 하월시아가 옛집을 그리워하고 있을지, 전문가의 손길을 잠시나마



느린 앵두나무가 혹시 계속 꽃집에 있고 싶어 한 건 아닌지 알고 싶어졌다. 이에 대한 대답이라도 해주듯 일주일이 지나자 앵두나무는 꽃 하나를 피웠고, 그 한 송이를 시작으로 다른 한 송이도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다. 더 피었을 꽃을 기대하며 아침에 일어나면 앵두나무부터 살펴봤고 퇴근 후 돌아와서는 흙 속에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넣어 보곤 했다. 고맙게도 보름 후에는 한두 송이의 꽃이 가지마다 걸려 있었다. 앵두나무는 그 좁은 화분과 영양도 떨어진 흙 속에서 꽃을 피울 날을 기다리며 견디고 있었나 보다. 예정대로라면 열매를 맺고 있어야 했을 시기다. 처서가 지났으니 곧 가을이 올 텐데, 겨우 꽃을 피운 이 작은 나무가 혹시나 늦선 계절에 열매를 맺게 되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작은 꽃들을 바라보다 앵두나무가 이렇게 작은 것도 있냐며 신기해한 사장님이 떠올라 정확한 이름을 알고 싶어 휴대폰으로 앵두나무를 검색해 보았다. 커다란 앵두나무의 사진들 사이로 집에서 키우는 작은 앵두나무가 보였다. 옥천앵두나무, 나무의 온전한 이름을 일 년이 지나서야 겨우 알았다. 사진 밑에는 옥천앵두나무의 꽃말도 적혀 있었다.

- 너 자신을 사랑하라.

마음 한편이 저릿해졌다. 너는 너를 사랑해서 꽃 피우기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조심스럽게 잎을 쓰다듬었다. 여전히 많은 잎이 누런빛을 띠고 있었다.

그걸 발견한 날 나는 어쩐지 상한 것이 산세비에리아만은 아니라는 자괴감에 휩싸였다.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다를 바 없지 않을까 하는.**

여전히 푸석한 마음으로 쉽게 부스러지는 나에게 새끼손톱보다 작은 꽃을 피워낸 앵두나무가 말을 건네는 듯했다. 꽃을 언제 피우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든 꽃을 피우는 거라고, 그러니 견디며 살아보자고,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자고. 무언가를 보살피는 건 결국 보살핌을 받는 일이었다.

흙 속에 손가락을 가만히 넣어 보자 남아 있는 수분과 가는 흙이 손가락을 간지럽혔다. 앵두나무의 뿌리 하나가 손가락을 타고 내 안의 수분을 확인하는 듯했다.

- *, ** 김금희, 『식물적 낙관』, 문학동네, 2023



| 작품 속 사진 설명 |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열매도
맺고 있던
옥천앵두나무



분갈이 후 고맙게도 다시
꽃을 피워준 옥천앵두나무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청년부

장려상



곡선이 들려준 위로

조 서 영

| 작품 설명 |

이 시는 바쁜 일상 속에서 바로크벤자민과의 교감으로 얻은 위로를 담았다. 양상한 가지로 시작했지만 물과 햇살, 마음을 나누며 아이는 점차 앞을 틔웠고 나의 마음에 자리하게 되었다. 바로크벤자민은 곧게 뻗지 못하고 앞이 돌돌 말려 자라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모습이 마치 나와 닮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 모습은 바쁜 현실 속 흔들리는 삶에 큰 위안을 주었다. 휘어져도, 느려도 괜찮다는 가르침 속에서 삶의 곡선 또한 아름답게 자라남을 보여주고자 이 시를 쓰게 되었다.



곡선이 들려준 위로

조 서 영

바쁜 현실의 무게가
하루하루 어깨를 짓누를 때,
나는 네 앞에 앉아 숨을 고른다.

작은 화분 속에서
네가 펼쳐낸 곡선의 잎사귀들
곧지 않아도, 흔들려도
빛을 향해 묵묵히 자라난다.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앙상한 가지에 불과했지.
그러나 내가 건넨 작은 마음,
한 모금의 물과 한 줄기 햇살이
네 몸을 따라 흐르며
새로운 초록을 불러냈다.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나에겐 기적이었다.
세상은 늘 빠르고 곧게만을
요구하지만
너는 말없이 가르쳐주었다.

휘어져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느리게 자라도 충분히
단단하다는 것,
작은 성장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

나는 오늘도
너의 초록을 바라보며 배운다.
바쁜 세상 속에서도
내 안의 곡선을 잃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깊게
내일을 향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 작품 속 사진 설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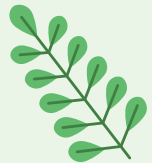


좋지 않은 환경에서 약해진
식물을 발견했다.
작지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보였다.

물을 주고 빛이 드는 곳으로
옮기며 돌봄을 시작했다.
잎이 서서히 피어나며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초록이 무성해져
빛을 향해 자라난다.
조용한 돌봄이 교감으로
이어진 순간이다.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청년부

장려상



조용한 탈피, 그리고 나의 성장

황 정 은

| 작품 설명 |

이 작품은 다육식물 하루와 두콩을 통해 성장과 변화를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는 이유로 키웠지만, 그들의 탈피를 지켜보며 나 자신도 조용히 성장함을 깨달았습니다.

‘조용한 탈피’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이어지는 성장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조용한 탈피, 그리고 나의 성장



황 정 은

2023년 사회생활에 첫 걸음을 내딛을 때, 나는 두 친구를 만났다. 작은 화분 속 하루와 두콩이다. 하트 모양의 축전에게는 하루라는 이름을, 완두콩처럼 동그란 코노피툼에게는 두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처음 꺾어보는 사회생활 속에 이 두 작은 존재는 나에게 소소한 재미와 즐거움을 주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는 이유로 키웠다. 식물과 관련된 일을 하지만, 그때만큼은 직업적 관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하루와 두콩이의 겹겹질이 벌어지고 안에서 새 잎이 돋는 모습을 지켜보며 귀엽다고 느꼈고, 덕분에 출근하는 즐거움도 얻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그들의 특별한 성장 방식을 알게 되었다. 오래된 겹질을 벗고 새로운 몸을 드러내는 탈피의 순간. 겉으로는 거의 변하지 않지만, 어느 날 문득 작은 틈 사이로 잎이 돋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놀라움과 신기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2025년, 나는 어느덧 3년 차 직장인이 되었다. 때로는 같은 일을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을 하는 듯 느껴지고,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하루와 두콩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성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쌓이는 경험과 고민들은 모두 내 안에 남아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하루와 두콩이는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탈피는 단순히 벗어내는 일이 아니다.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는 길이다. 식물은 서두르지 않는다. 느리지만 굳건하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자란다. 그 모습은 속도의 빠르기보다 방향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앞으로 나는 더 단단해지고, 때로는 더 유연해지며, 나만의 보폭으로 성장할 것이다. 하루와 두콩이가 묵묵히 탈피를 거듭하듯, 나 역시 어제의 나를 벗겨내며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성장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1년 차 때 만났던 하루와 두콩은 지금도 내 곁에서 자라며 말 없는 격려를 건넨다. 그들을 통해 성장은 멀리 있지 않으며, 매일의 작은 변화 속에 이미 깃들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나는 흔들림 없는 방향을 잃지 않고, 내 안의 겹질을 하나씩 벗겨내며 조금씩 더 단단하게 성장할 것이다.



| 작품 속 사진 설명 |



하트 모양의 귀여운 친구, 축전.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이 귀여워 '하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성장의 기운을 느끼지 못하던 순간,
겉껍질을 벗고 조용히 자라나는 작은
친구 '하루'. 그 옆에서 나도 몰래
탈피하며 함께 조금씩 자라간다.



동글동글 작고 귀여운 코노피툼 칼쿨러스.
완두콩을 닮아 '두콩'이라 이름을 지어주었다.



두콩이는 탈피하며 잠시 못생겼지만,
끝내 매끈하고 단단해져 더 크게
성장한다. 나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
단단한 마음으로 조금씩 성장한다.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경진대회 참가자 특성 및 시화작품 분석 결과



1. 경진대회 개요

① 추진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 반려식물 인구는 약 1,745만 명, 시장 규모는 약 2조 4,215억 원으로 추정('24, 농진청)될 만큼 반려식물 문화와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의 정서적 공감과 문화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에서 식물과의 교감을 통한 정서 함양과 생활 속 반려식물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식물에 시(詩)를 심자, 마음 속 꽃(花)이 피어나다”를 개최하였다.

② 주요내용

- 1) 참여대상: 반려식물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국민 누구나
- 2) 참여부문: 2부문(청년부, 중장년부) * 청년부: 20-40대, 중장년부: 50대 이상
- 3) 제출작품: 반려식물과 관련된 나만의 이야기를 표현한 글과 그림이 담긴 시화 작품

제출작품	세부 내용
글 (시 또는 산문)	반려식물과 교감을 나눈 추억, 반려식물로부터 치유받은 경험 등에 상상이 덧붙여진 이야기(1pg 내외)
그림 (그림 또는 사진)	출품된 글의 내용과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 또는 직접 촬영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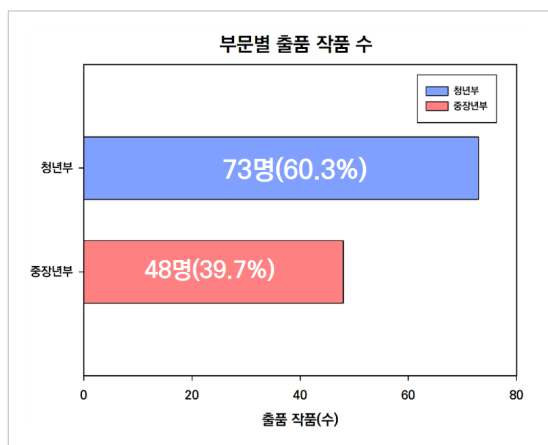
4) 추진일정

공고 및 참가 접수	1차 서류심사	2차 서류심사	본선 진출작 공개	현장투표 및 최종 상훈 결정
'25.08.18.~ '25.09.18.	'25.09.19.	'25.09.22.~ '25.09.29.	'25.09.30.	'25.10.16.

2. 참가자 특성

① 부문별 출품 작품 수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는 청년부(20~40대) 73명과 중장년부(50대 이상) 48명을 포함한 총 121명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연령대로는 20대가 38명(31.4%)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50대 28명(23.2%), 60대 이상 20명(16.5%)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20대의 높은 참여율**은 식물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직접 식물을 돌보고 기르는 **‘반려식물 문화’**가 최근 들어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확산된 결과의 연장선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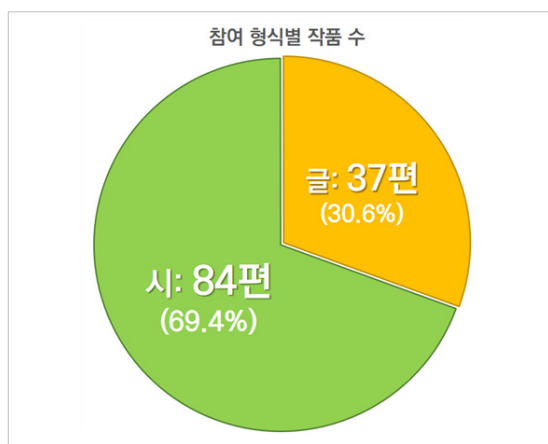
〈그림 1〉 경진대회 참여부문별 출품 작품 수 비교

연령대	작품 수	비율(%)
20대	38	31.4
30대	16	13.2
40대	19	15.7
50대	28	23.2
60대 이상	20	16.5
합계	121	100

표 1. 연령대별 경진대회 출품 작품 수 비교

② 출품 작품 유형

경진대회에 출품된 작품 유형으로는 시가 84편(69.4%), 글이 37편(30.6%)이었으며, 각 부문에서도 청년부는 시 55편 글 18편, 중장년부는 시 29편 글 19편으로 글보다 상대적으로 ‘시’를 더 많이 출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 경진대회 참여 형식별 출품 작품 수 비교

부문	시	글
청년부	55	18
중장년부	29	19
합계(수)	84	37
비율(%)	69.4	30.6

표 2. 경진대회 참여부문별 출품 작품 유형 비교

③ 지역별 출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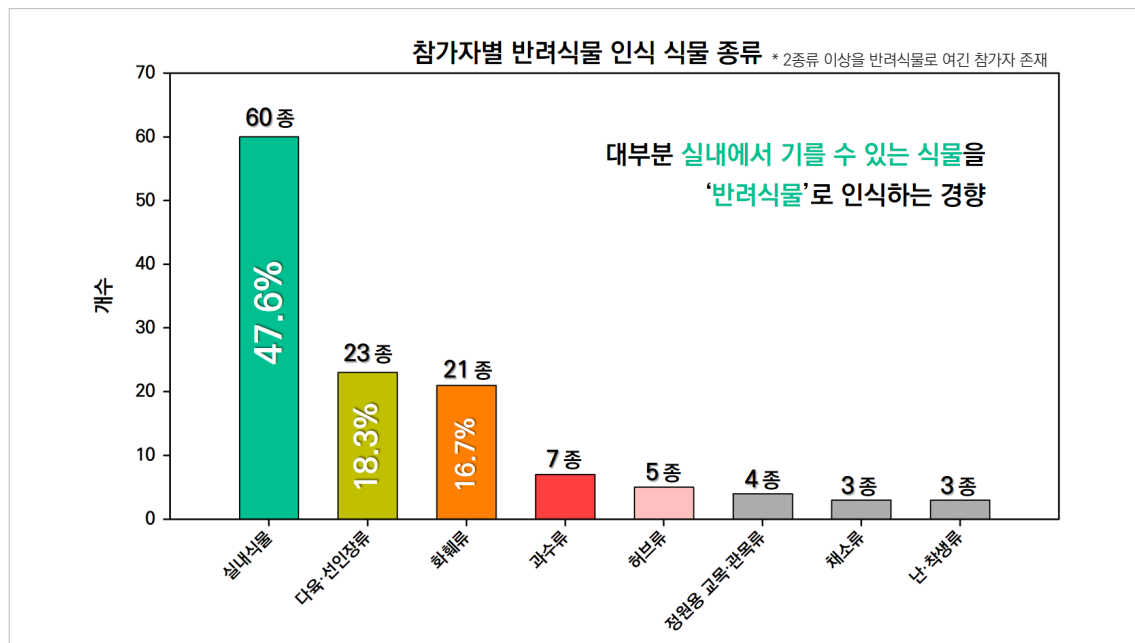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32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서울(31), 인천(9)을 포함한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에서 72명이 참가하며 가장 높은 참여율(59%)을 보였다. 이어 대구(10), 경북(5)을 포함한 영남권에서 21명(17%), 전북(13), 광주(3)를 포함한 호남권에서 18명(15%) 참여하였다.

지역별 출품 작품 수															
지역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기타	
	경기	서울	인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충북	제주	강원
수(%)	32	31	9	10	5	4	2	13	3	2	3	2	1	2	2
	72(59%)			21(17%)				18(15%)			6(5%)			4(4%)	
합계	121(100%)														

표 3. 지역별 경진대회 출품 작품 수 비교

④ 참가자별 반려식물 인식 식물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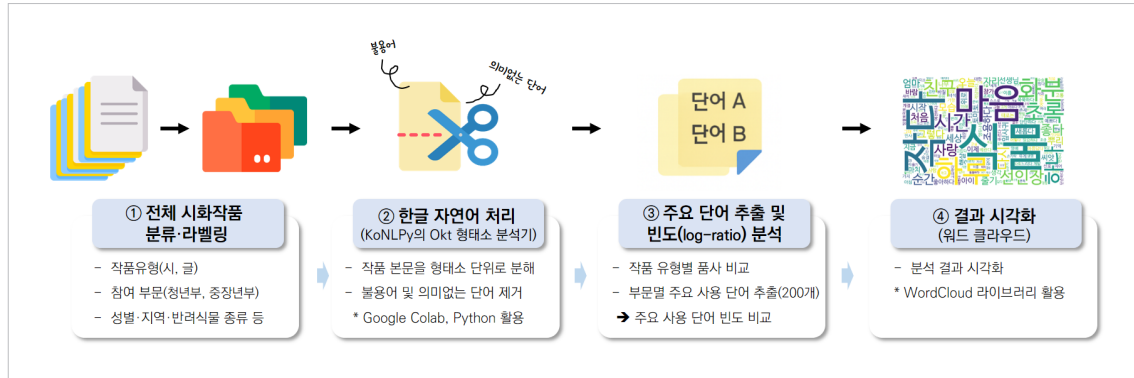
시화작품에서 나타난 경진대회 참가자별 반려식물로 인식한 식물의 종류를 비교한 결과 총 8가지 분류기준 중 ‘실내식물’이 60종으로 가장 높은 비율(47.6%)을 차지하였으며 다육·선인장류, 화훼류가 각각 23종(18.3%), 21종(16.7%)으로 뒤를 이었으며 과수, 허브, 정원용 교목·관목, 채소 등을 반려식물로 인식한 사람도 일부 있었으나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을 반려식물로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경진대회 참가자별 반려식물 인식 식물 종류

3. 시화작품 분석

① 분석 방법



〈그림 4〉 텍스트마이닝 기반 시화작품 워드 클라우드 분석 방법

텍스트마이닝 기반 워드 클라우드 분석은 ‘작품 유형(시·글)’과 ‘참여 부문(청년부·중장년부)’ 항목을 기준으로 전체 시화작품을 분류·라벨링한 뒤 Google Colab 환경에서 Python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데이터 전처리에서는 한글 자연어 처리를 위해 KoNLPy 라이브러리의 Okt (Open Korean Text)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각 작품의 본문을 형태소 단위로 분해하고, 불용어(예: 조사, 어미, 접속사, 대명사 등)와 의미가 불분명한 단어를 제거하였다.

이후 정제된 형태소 중에서 명사와 형용사를 중심으로 주요 단어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품 유형별 품사 분포를 비교하고 참여 부문별 주요 사용 단어 200개를 추출하여 청년부와 중장년부 간 주요 사용 단어의 상대적 빈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log_2$ -ratio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WordCloud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시각화하였다.

* 형태소: 의미나 문법적 기능을 갖는 최소 단위

* log-ratio 분석: 특정 단어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자주 사용되었는지를 로그 척도로 나타내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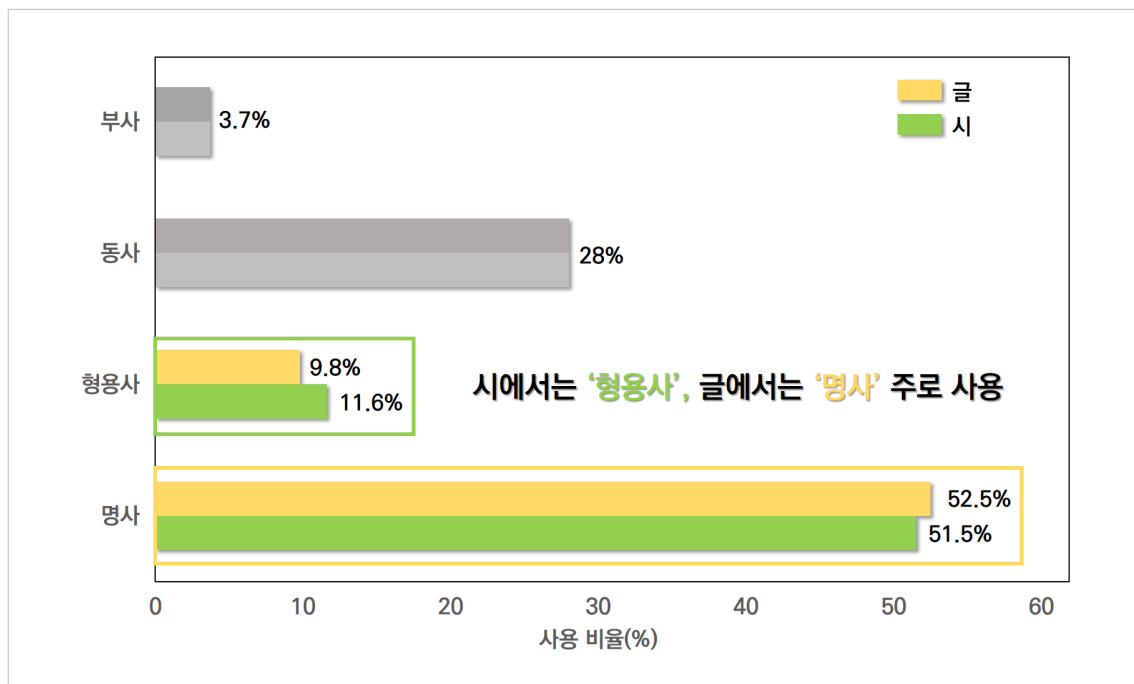
② 작품 유형별(시·글) 사용 단어 비교

반려식물 시화작품에 접수된 전체 121개 시화작품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작품 유형별(시·글) 사용된 단어를 비교한 결과, 전체 시화작품 중 시에 사용된 단어의 수는 5,229개였으며 글은 8,185개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시(n=84)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작품 수(글, n=37)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에서 더욱 많은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서술적 성격의 글과 함축적 성격을 띄는 시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확인되었다.

작품유형	품사별 사용 단어 수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기타	합계
시 (n=84)	2,693	1,463	608	196	269	5,229
글 (n=37)	4,299	2,291	804	302	489	8,185

표 4. 작품 유형에 따른 품사별 사용 단어 수 비교

또한 작품 유형별 주로 사용된 단어의 품사를 비교한 결과, 부사와 동사는 시와 글 모두 각각 3.7%, 28%로 동일한 비율의 품사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형용사와 명사의 경우, **시는 글보다 형용사**(시: 11.6% > 글: 9.8%)를 **더 많이**, **명사**(시: 51.5% < 글: 52.5%)를 **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짧은 문장 안에서 함축적인 주제와 감정을 전달하려는 시의 특징이 드러난 결과로 확인되었다.



〈그림 5〉 작품 유형별 주요 사용 단어 품사 비교

③ 부문별(청년부·중장년부) 사용 단어 비교

(1) 부문별 공통 사용 단어 비교

참여 부문별 작품 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를 비교한 결과(표 5, 표 6), 청년부와 중장년부 모두 공통적으로 ‘식물’, ‘작다’, ‘마음’을 가장 많이 사용하여 반려식물을 주로 ‘마음을 나누는 작은 존재’로 인식하는 공통된 정서적 기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화분’, ‘하나’ 등의 단어 또한 많이 사용하여 주로 ‘화분에 담긴 1~2개의 식물’을 반려식물로 여기는 경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하루’, ‘시간’, ‘사랑’, ‘모습’ 등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청년부에서는 ‘초록’, ‘친구’, ‘선인장’ 등의 단어를 중장년부에서는 ‘화초’, ‘아이’, ‘줄기’, ‘나무’ 등의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특히 청년부의 경우 ‘친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며 반려식물을 나와 함께 살아가며 의지할 수 있는 동등한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부 주요 사용 단어 TOP 20〉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식물	111	11	사랑	27
2	작다	92	12	줄다	26
3	마음	65	13	다시	26
4	하루	50	14	순간	25
5	화분	49	15	그렇다	25
6	초록	41	16	처음	24
7	하나	36	17	모습	24
8	시간	35	18	조용하다	23
9	친구	29	19	오늘	23
10	선인장	27	20	엄마	23

표 5. 청년부 주요 사용 단어 TOP 20

〈중장년부 주요 사용 단어 TOP 20〉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식물	83	11	줄기	23
2	마음	53	12	나무	23
3	작다	46	13	세상	19
4	화분	34	14	사람	19
5	화초	34	15	하루	19
6	하나	28	16	모습	19
7	사랑	28	17	반려	19
8	아이	27	18	아침	18
9	엄마	24	19	행복	18
10	시간	23	20	뿌리	17

표 6. 중장년부 주요 사용 단어 TOP 20



〈그림 6〉 청년부 주요 사용 단어 워드클라우드



〈그림 7〉 중장년부 주요 사용 단어 워드클라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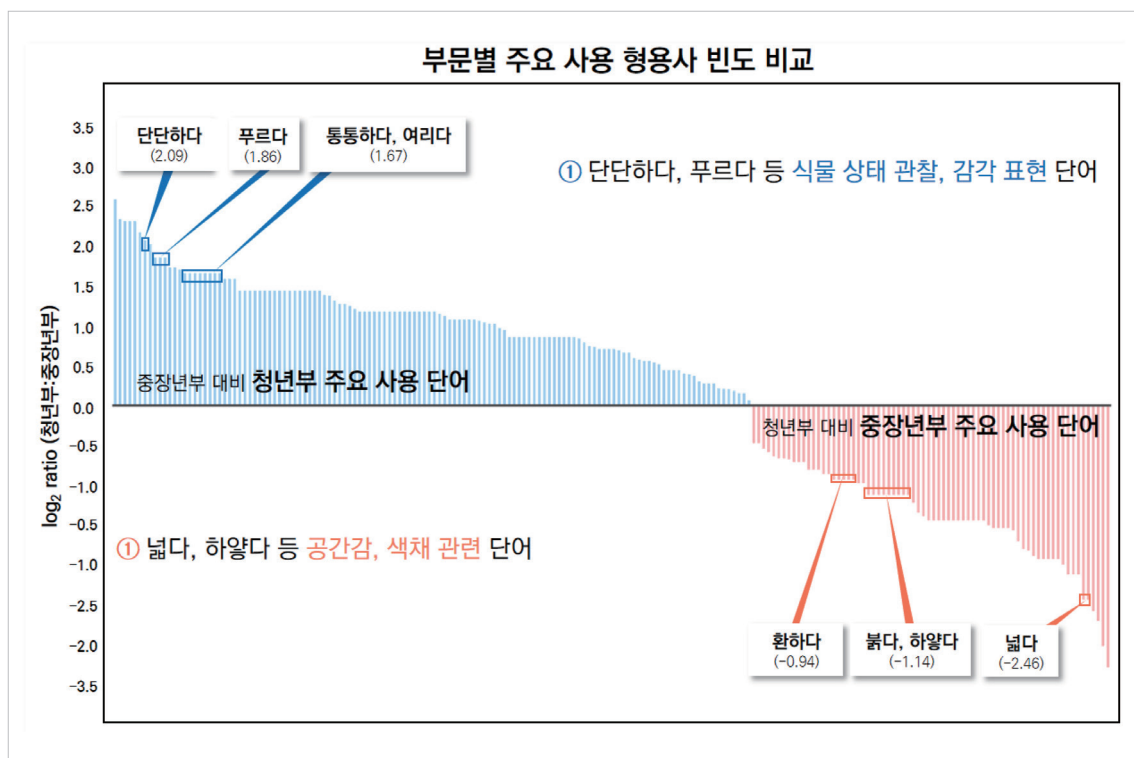
(2) 부문별 주요 사용 단어(형용사) 비교

참여 부문별 주로 사용한 형용사 단어를 $\log_2$ ratio 분석 방법으로 비교한 결과(그림 8), 청년부에서는 중장년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단하다(2.09)’, ‘푸르다(1.86)’, ‘통통하다, 여리다(1.67)’와 같이 식물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부의 언어적 특징은 하루하루 식물의 모습을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점차 반려식물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느리지만 조금씩 성장해가는 식물을 통해 바쁜 일상 속 지쳤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얻어온 청년층들의 소중한 추억과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중장년부에서는 ‘넓다(-2.46)’, ‘하얗다, 붉다(-1.14)’, ‘환하다(-0.94)’와 같이 주변 환경의 공간감이나 색채감 등을 묘사하는 표현이 두드러졌다. 이는 삶의 풍경 속에서 식물을 바라보며 체험한 순간의 이미지를 기록하고 그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개인의 감정을 섬세히 표현하는 중장년부만의 언어적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TIP |

- $\log_2$ ratio 분석에서 단어의 값이 양수(+)인 경우 중장년부 대비 청년부에서 더욱 많이 사용한 단어이며, 음수(-)인 경우 청년부 대비 중장년부에서 더욱 많이 사용한 단어이다
- 또한 같은 양수·음수 단어 간의 비교에서는 절대값이 큰 단어일수록 같은 부문 내에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많이 사용된 단어이다(ex: ‘단단하다(2.09)’는 ‘푸르다(1.86)’보다 중장년부 대비 청년부에서 더 많이 사용된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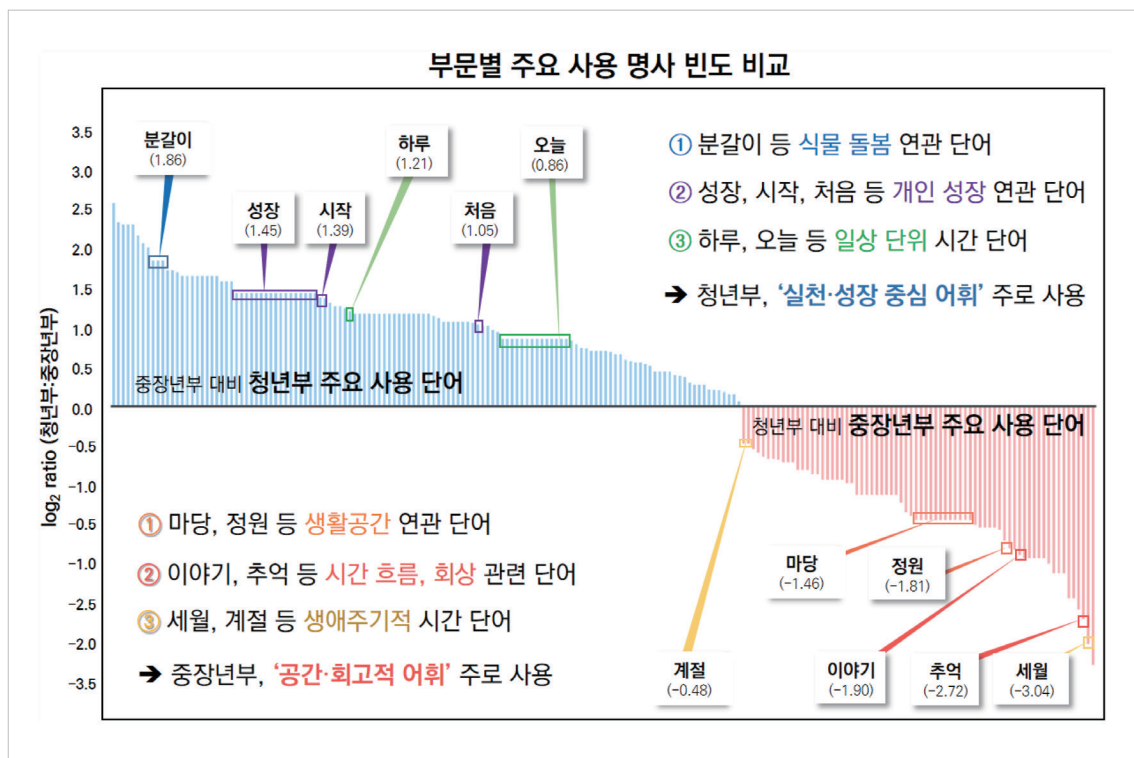
〈그림 8〉 부문별 주요 사용 형용사 빈도 비교

(3) 부문별 주요 사용 단어(명사) 비교

참여 부문별 주로 사용된 명사 단어를 $\log_2$ ratio 분석 방법으로 비교한 결과(그림 9), 청년부에서는 중장년부에 비해 ‘**분갈이(1.86)**’와 같이 **식물을 돌보는 과정**과 관련된 단어와 ‘**성장(1.45)**’, ‘**시작(1.39)**’, ‘**처음(1.05)**’처럼 **개인의 성장**과 연관된 단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하루(1.21)**’나 ‘**오늘(0.86)**’과 같은 **일상 단위**의 시간적 단어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행동과 성장 중심의 어휘**를 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중장년부의 경우, 청년부에 비해 ‘**마당(-1.46)**’이나 ‘**정원(-1.81)**’과 같이 생활 공간과 관련된 단어와 ‘**이야기(-1.90)**’, ‘**추억(-2.72)**’ 등 회상과 관련된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더불어 ‘**계절(-0.48)**’, ‘**세월(-3.04)**’처럼 시간의 흐름에 관한 단어를 사용하며 전체적으로 공간에 관련된 어휘와 회고적인 어휘를 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참여 부문별 주요 사용 단어 비교를 통해 **청년부는 ‘성장’과 ‘일상’**, **중장년부는 ‘공간’과 ‘회상’**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언어적 경향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반려식물을 대상으로 한 시화작품이라는 공통된 매개체 내에서도 세대별로 반려식물에 대한 정서적 공감 방식이나 표현의 방법 등 세대 간의 언어적 경향 차이가 나타난 결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반려식물 지원·보급 사업이나 관련 프로그램, 사업 계획 시 이와 같은 반려식물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바탕으로 세대별 맞춤형 계획 수립 및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부문별 주요 사용 명사 빈도 비교

2025 반려식물 시화작품 경진대회 기술보급서

식물에 시詩를 심자,
마음 속 꽃花이
피어나다展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김명수
편집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장 김광진
지은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한승원, 정성민, 김재순, 김우영, 이형석, 정유경, 추한나
발행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우 : 5536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Tel. 063)238-6914
인쇄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스쿨프린팅그룹(주) (TEL. 02-2285-3366) http://schoolpt.co.kr
